



국어·수학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어려웠다

이준식 교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핵심·기본적 내용 중심 출제”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에서 1교시 국어와 2교시 수학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1교시 국어영역은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에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일부 문제 유형이 바뀌어 비교적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치러진 두 차례 모의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난도가 낮아 보였다. 6월 모평 때는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더 어려웠고 9월에는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교시 수학영역은 이과계열 수

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가형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고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과계열 수험생들이 보는 '나형'은 9월 모평이나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수는 전반적인 출제경향에 대해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기본 개념 이해와 적용 능력,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주리·분석·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출제 문항과 EBS 교재 연계율은 문항수를 기준으로 국어는 71.1%였으며, 수학 가형과 나형 70.0%, 영어 71.1%, 한국사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

외국어·한문 모두 70.0%였다.

전국 85개 시험지구, 1130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40분부터 시행된 이번 수능에는 59만3천527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재학생은 44만4천373명, 졸업생 등은 14만8천654명이다.

평가는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의견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12월 4일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12일 수험생에게 통보되며, 영·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한국사와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성적표 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김정환기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방안 대전시 시민대토론회 개최

대전광역시시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9대 대전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선정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과 국회 이상민 의원 등 정치계 인사와 황경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박태규 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단체장, 장애인복지시설장,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원 대전대학교 교수와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이병권 건강대학교 교수, 권순오 대전시교육청 장학관, 이선욱 장애인부모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시민의 질의답변을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장장수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어린이재활병원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는 100병상, 공공성 확보와 지방재정의 한계점을 고려해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국립이 어려울 경우 건립비와 운영비는 최소한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되어야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패널로 참여한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성인의 37배에 달하는 장애아동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최초 건립하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은 제대로 된 병원을 건립하고 집중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김택수 정무부시장은 “대전 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어린이 재학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수험생들 파이팅!!”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23일 수능 당일 아침, 시험장인 대전둔원고, 대전민고 등 2개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수험생 시험감독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시험감독관 등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현대제철 산업용 보일러관 세계 일류상품 선정

총 7개 세계 일류상품 보유... 철강업계 최다 영예

현대제철이 세계 일류상품 철강업계 최다 보유의 영예를 이어나가게 됐다.

현대제철은 2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산업부 주관 2017년 세계 일류상품 선정 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ERW 산업용 보일러관이 세계 일류상품으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총 7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보유하게 돼 13년 연속 철강업계 최다 보유의 영예를 이어나가게 됐다. ERW 산업용 보일러관은 고주파 용접장판 표면 핀(Pin) 가공을 한 제품으로

복합화력발전소 배열회수 보일러에서 열을 흡수, 물을 증기로 변환시키는 데 사용되는 핵심 배관부품이다. 세계 일류상품은 산업부 주관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KOTRA(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이며 해당 상품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기억 중 1위일 때 자격이 부여된다.

현대제철은 세계 일류상품을 선정하기 시작한 2001년 H형강과 열간압연용 원심주조 공구강 롤(HSS ROLL) 등 2개 제품을 일

류상품의 반열에 올린 이래 2005년 무한케모, 부등변 부등 후 앵글, 강널말뚝, 선미 주강품 등 4개 제품을 추가하면서 6개의 일류상품을 보유해왔다. 2015년 선미 주강품이 제외됐지만 유정용 강관이 새롭게 일류상품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까지 6개의 일류상품을 유지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 ERW 산업용 보일러관이 신규 선정돼 총 7개 제품을 세계 일류상품에 올림으로써 현대제철의 기술력과 품질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됐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기상청, 12월~내년 2월 기상전망 발표

기상청이 3개월 기상전망을 발표했다.

기온의 경우, 12월에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월과 2월에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겠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기온 변화가 크겠다.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이다.

12월은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1월은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

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월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다.

2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이영호기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23개 법정계획 중 13개 제 때 안나와 방향타기능 미흡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 업무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23가지 법정중장기계획 중 상당수가 제 때 나오지 않거나 시행연도가 시작되는 해에 발표돼 나침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문체부 법정계획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63개 법률 중 23개 법률에서 3년 또는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계획은 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 발표해야 할뿐 아니라 각 영역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집적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상당수가 이전 계획이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거나, 이미 시행시기가 시작된 뒤 발표되어 집적역할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13개 법정계획이 제 때 세워

지지 않거나 시기가 지나 발표되지 못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까지만 대상으로 한 제2차 계획 이후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다. 이 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발표해야 하지만 2014년 제2차 계획 발표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문체부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라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 올해 5월이었고 이미 지난해 초에는 발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의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이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셈이다.

문체부는 지난 9월8일 ‘한국인쇄 세계화로 한류문화 견인’을 비전으로 하는 4대 전략과 17개의 추진과제를 담아 제4차 인쇄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다.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은 국고 268억 원을 포함해 총 41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제4차 계획의 대상 시기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난 뒤부터였다. 관련 첫 해 예산 배정도 이미 1년 전에 확정된 뒤였다.

현재의 법정계획 대상 시기가 올해로 끝나는 생활체육진흥계획 등 3가지도 아직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생활체육진흥계획은 이달부터 2달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진흥계획은 올해 말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은 내년 5월 발표 계획이다. 그런데 해당 업무의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벌써 확정되어 국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이미 시기를 놓치기는 마찬가지이다.

김병욱 의원은 “23개 법정계획 중 절반이 넘는 13개가 뒷북처럼 수립되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의 나침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적어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기 1년 전에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도록 타인스케줄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복기자

HYUNDAI MOTOR GROUP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왔습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은으로도, 차동저항, 승차감, 통풍에 대한 신뢰를 받고, 두꺼운 금속을 누르는 행복한 자동차 안에서의 승차감을 느끼는 행복한 차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졸음쉼터 진·출입로 짧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

[인쿠르트] ‘지진에 대한 공포감’ 대해 설문 조사 결과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5.3명(70.6%)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 사이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의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명 중 48명(9.6%)은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개소, 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개소, 40.0%), ‘CCTV’(23개소, 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은 ‘화장실’은 20개소(44.4%)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9개소(20.0%)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중·대형 졸음쉼터에만 ‘파고라’ 설치가 의무

부여소방서 ‘전 군민 소화기 갖기’ 홍보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조기 설치로 인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 군민 소화기 갖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월 4일까지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지만 아직도 설치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올해 설치율 40%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원스톱 지원센터를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와 연계해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및 설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 및 마을이장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선기자



제4회 국가안전방재포럼 개최

‘동북아의 복합 안보위기와 국가안보 전략’ 주제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군사연구원(원장 최복진 교수)이 23일 대학 30주년기념과 314호에서 ‘동북아의 복합 안보위기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 4회 국가안전방재포럼’을 개최했다.

대전대 군사연구원과 한국동북아학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대전대 이종서 총장을 비롯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오수열 한국동북아학회 회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이종서 총장의 촉사를 시작으로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질서 변화’와 ‘안보위기와 위기관리 리더십 및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발표가 각각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표는 30주년기념과 내 강의실 및 회의실을 통해 개최됐으며 이후 만찬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정복기자



“CCTV 목적 외 근무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청에게 지체감사시 CCTV 활용 실태 점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자체 감사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 활용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권고했다.

A경찰관(진정인은 경찰서 청문 감사실 담당자(피진정인)가 본래 용도와는 달리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사용했다며, 인권침해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상환근무를 섰 당시 근무를 태만 하였다는 첩보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CCTV영상을 통해 진정인의 비위를 적발하는 것은 검찰 조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 범위로,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집행규제 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CCTV 영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따져봐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자료 요청 등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떤 달간 모든 영상자료를 인출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CCTV, 전자 카드, 지문인식, 위치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필요 최소한의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인의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확보한다면, 모든 파출소 직원들의 평상시 근무 모습이 피진정인에게 가감 없이 노출될 수 있고, 이는 ‘전자감비’를 이용한 근무태도 감시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김정환기자



공주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에이징대 예방 캠페인 공주경찰서(서장 옥종명)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 ~ 25.을 맞아 22일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아산시는 지난 2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시지사, 순천향대학교와 온양온천시장에서 전기설비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대전지방법원, 11월 규제개혁 연구모임 실시 대전지방법원 법원사무장은 23일 대전지방법원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제작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동영상 시청과 직원들이 제출한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11월 규제개혁 연구모임을 실시했다.



청양경찰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 실시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숙)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예방과 농어촌지역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운전면허 취득편의를 위해 경찰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했다.

계룡건설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성금 1억원 기탁



계룡건설이 2017년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돕기를 위한 나눔캠페인 등을 통해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은 11월 23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사랑의 은도탑 제막식에 참석하여 ‘희망

으로 계룡건설은 매년 기부활동 참여를 통해 나눔캠페인에 동참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이웃의 온정이 절실하지만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비역들을 위한 위문금 1,000만원을 육군본부에 전달했으며, 특히 2011년부터 시작한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에 매년 1억원씩을 후원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승찬 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번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담아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더 행복한 지역 만들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공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 강화

경량칸막이 설치 공동주택 입주인 대상 교육·홍보 추진



으로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화재가 취약한 공동주택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 주민생활 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저감코자 경량칸막이 설치 세대별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경량칸막이 설치 아파트 플래카드 게시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안내문 부착 ▲경량칸막이 설치 세대 안전 피도그램 배부 ▲입주민 대상 홍보 설명회 및 이벤트 개최 등이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도그램(그림 문자) 스티커를 경량칸막이 설치 아파트 전 세대에 배부 할 예정이다.

공주=정승범기자

아산시, 본격적인 김장철 맞아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 사용 안내



아산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

집중수거 대상인 김장쓰레기

아산=리량주기자

한밭대 재경 총동문회 정기총회

서울지역의 한밭대 동문 100여명 참석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22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2017년 재경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한밭대학교 재경 총동문회(회장 김수영)가 주최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지역의 한밭대 동문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송하영 총장을 비롯해 김만구 총동문회장, 대학 보직교수, 동문회 임원, 학생대표 등 20여명도 참여해 재경지역 동문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밭대학교의 2017년 한해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돼 동문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는 송하영 총장이 직접 동문들을 대상으로 설명에 나섰으며, 한밭대 개교90주년을 기념한 각종 행사와 흥성공립공업전수학교 옛터 기념비 설립을 비롯하여 대전지역 최대 규모의 LINC+ 사업 선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선정, 산업계관선 최우수대학 선정(기계공학 부문)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서 송하영 총장은 “한밭대 90주년의 역사와 명성은 동문들의 땀과 노력이 스민 소중한 유산”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 “결혼식 참석 부담되네”

<인크루트>조사결과... 축의금 액수 평균 65,733원인 것으로 조사

직장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 결혼식의 축의금 액수는 평균 65,73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3.5,7만원 등 금액을 홀수로 맞춰야 한다면 10만원 단위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습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금액이 산출된 셈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 대표 이상식은 전국 직장인 478명을 대상으로 ‘축의금, 얼마만 되겠니?’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다고 23일 밝혔다. 응답자들에게 1회 축의금으로 지출한 최대 금액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평균 263,704원이라는 답변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결혼식 참석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직장인의 92.3%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이유에 대해 묻자, 45.6%의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주요한 부담 요소로 꼽았고,

이어 '시간적 부담(25.4%)', '(예식장 등의) 거리적 부담(19.6%)', '심리적 부담(9.0%)' 순의 답을 내놨다. 하지만 부담을 느낄 경우라도 대다수는 나름의 '성'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스럽더라도' 참석한다는 답변이 4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축의금만 보낸다(40.8%)'는 답변 또한 많았다. '축의금을 전달하지 않고, (결혼식) 참석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9%에 그쳤다. 일부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인크루트 이상식 대표는 "11월은 결혼 성수기라고 불릴 정도로 유난히 결혼식이 많은 시기'라며,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지인의 결혼식 참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바, 적정 축의금을 참고해 소신껏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되면 좋을 것"이라는 설문소감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2017 당진 학생 예술 축제’ 성료

당진교육지원청 “꿈과 끼의 예술축제, 아름다운 합창의 하모니 펼치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은 지난 22일, 2017 당진 학생 예술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 중, 고 22개교의 24개 팀이 참가했고 합창, 기악 연주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당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종합 예술제로서, 38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8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관람했으며, 또한 이 행사는 도교육청 홍보담당관실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당진 학생 예술의 역량을 충남 전역에 과시하는 기회가 됐다. 당진=최근수기자

최진 종합 예술제로서, 38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8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관람했으며, 또한 이 행사는 도교육청 홍보담당관실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당진 학생 예술의 역량을 충남 전역에 과시하는 기회가 됐다. 당진=최근수기자



천안교육지원청, 11월 목요강좌 개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복)은 2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유·초·중·고 학부모 13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천안교육가족목요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해 따라 미래의 변화를 인지하고, 자신만의 역량을 만들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학부모와 함께 자녀의 미래의 교육방향을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천안=채기병기자

다. 교육내용은 '미래사회의 변화와 자녀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 따른 교육의 방향, 창의·융합사고의 유연함을 위한 교육의 방향, 역량중심의 융합적 교육의 방향 등에 대해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오기영 교수의 특강으로 자녀들이 만날 미래와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천안=채기병기자



태안원이중, 전국 모의재판대회 대상

태안원이중학교(교장 김서배)는 21일 법무부가 주최하고 법철사선진화과가 주관하는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부여전자고 학생들이 대만 국외 연수 다녀오다 부여전자고등학교(교장 김호성)는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외직업교육 체험학습을 대만에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진행했다.



하모니인드림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료 지난 22일, 아산시여성회관 대극장에서는 아산시가 지원하는 하모니인드림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가 개최됐다. 이날 자존영 지휘자를 비롯한 50명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영화, 뮤지컬의 대표적인 명곡 8곡을 연주했으며, 성악가 3명을 초청해 협연도 했다.

충남도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2개 영역 우수 교육청 선정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청 평가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과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구축' 2개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한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7개 영역(25개 지표, 세부 79개)로 구분해 교육 전 분야에 대해 실

시했다. 평가분야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이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직업교육 체제강화 및 진로탐색·진로설계 지원 지표에서 우수한 성

과를 거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과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구축' 등 2개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평가결과는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충남교육청의 학생중심 현장지원 교육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다른 평가분야에서도 더욱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청양 인재들!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넘쳤던 청양교육지원청 2018 수능 응원 의 현장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영)은 23일 청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2018 대학 수험능력 수험생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격려했다. 2018 대학 수능 62지구 제5시험장인 청양고에서는 청양고와 정산고 학생과

재수생을 포함한 총 140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다.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꿈을 향한 정진 끝에 들어서는 자리에서 희망찬 정진을 확인받는 자리에 들어서며 떨리는 마음으로 교문을 통과했다. 청양 교육청 윤주영 교육장은 "포함 지

진으로 1주일 연기된 이번 수능으로 학생들이 예년과 다른 긴장된 1주일을 보내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학생들과 이를 지원한 청양고와 정산고 선생님, 학부모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내면서 직원들과 함께 '이 구역 1등급은 내야!', '수능대박! 이것은 실화!', '넌 최고야! 너에 대한 믿음을 가져' 등의 다양한 수능 격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응원했다. 수험생들은 다양한 응원 문구와 청양 지역 어머니회에서 제공하는 따뜻한 차, 손ਨ로, 지역사회 어른들의 사랑 가득 찬 응원으로 공평한 마음을 녹이며 입실했다. 윤주영 교육장은 영하를 밑도는 차가운 한파로 수능의 위용을 떨치는 가운데서도 내 고장 학생들의 수능을 격려하기 위해 응원을 나온 청양군수(이석화)와 군청 직원, 청양경찰서장 및 경찰관, 청양군 어머니회, 청양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청양인재의 꿈을 향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청양=정장범기자

학생·시민과 함께 페이스북 세종시 지명찾기 캠페인 나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민과 학생들의 공감대 확산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 6일(수) 페이스북 코리아에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23일(목)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민·시청 담당자와 함께 페이스북 코리아를 강남구 역삼동 소재를 방문해 세종시 이름찾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이후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주커버그' 소환 등 온라인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문산초등학교(교장 장철순)는 지난 1명의 전입생이 생긴 이래 지난 22일 2학년 학생 1명이 전학 와서 학교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함께 하는 특성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로 자연생태학교 운영, 개인별 스마트 패드와 드론 지급, 전교생 해외연수와 같은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공동학구인 서천읍의 아파트 단지외 주책가를 들며 신입생과 전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문산초의 교육내용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역의 학부모들이 점차 관심을 갖으며 전입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입생 부모는 "문산초가 작은 학교만의 특성을 살리는 특별한 교육을 한다고 들었다.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 개인별 맞춤 교육이 가능한 여건, 해외문화 체험이나 생태학교 운영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이 만족스러워 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철순 교장은 "문산초는 작지만 강한 학교로 변화하고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전교생 한 명 한 명을 특별히 키웠다. 교육활동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청(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청)과 함께 '페이스북, 세종시 지명찾기 캠페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월간 약 21억여 명의 인구가 이용하는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여전히 행정구역 개편 전 정보인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지속 표기되고 있어 세종시의 시민과 학생들이 불이익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이름찾기 캠페인 게시물이 교육청 페이스북에 올라오자 '격곡(격하게 공감한다)', '전에도 민원 넣었는데 아무 것도 안됐어!'라는 반응과 게시물에 친구 소환 태그를 거는 등 세종시 이름찾기에 대한 세종시민과 학생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여고 전혜립 학생은 "평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과 페이스북을 통해 한글을 가르쳐주는데, 거주지가 세종시가 아닌 충청남도 연기군 학생으로 표기되어 있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를 설명하고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며, 외국인 친구들 또한 충청남도 연기로 표시되는데 세종시 학생이냐며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위치정보를 세종시로

충남남부평생학습관, 다양한 환경지킴이 활동 실시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관장 김용진은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으로 '의논해 기획단' (매주 금요일 밴블 어중 및 연산중)을 운영, 지역 중학생들과 함께 '탐정호 쓰레기줍기'와 '폐현수막재활용'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지킴이 활동을 진행 중이다.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24 hour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25 hour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26 hours.

TV 하이라이트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20분)



식당 사무실에서 담남에게 들릴 뻔한 세나와 유경은 황급히 빠져나오고, 돈이 없어 노숙생활을 전전한다. 이란이 담남과 재우 사이를 허락했음을 안은 정은 선호에게 서운해 한다. 선호의 사장취임 소식에 세나는 회사를 찾아갔다가 담남과 선호의 다정한 모습을 보자 이성을 잃는다. 세나는 휴전 차

케이블 영화

타짜 (25일 OCN 오후 10시30분)

인생을 건 한판 승부! 큰 거 판에 인생은 예술이 된다! 목숨을 걸 수 없다면, 배팅하지 마라! 꽃들의 전쟁. 기구공장에서 일하며 남루한 삶을 사는 고니는 대학보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돈이 우선인 열혈 찬방지족 청년! 어느 날 고니는, 기구공장 한 칸에서 박무석 일행이 벌이는 화투판에 끼게 된다. 스무장의 화투로 벌이는 '첫' 한 판! 하지만 고니는 그 판에서 삼년 동안 모아두었던 돈 전부를 날리고 만다. 그것이 전문도박꾼 타짜들이 짜고 친 판이었다. 사실을 뒤늦게 안 고니는 박무석 일행을 찾아 나서고, 도박으로 시비가 붙은 한 창고에서 우연인 듯 필연처럼 전설의 타짜 평정장을 만난다. 그리고 잃었던 돈의 다섯 배를 따면 화투를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와 함께 본격적인 꽃싸움에 몸을 던지기 위한 동행길에 오른다.

청양초, 학생체육대회 배구부문 금메달 획득

제26회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 배구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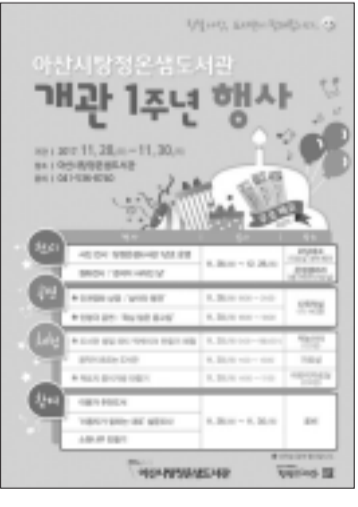
청양초등학교(교장 최재길)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제26회 충남학생체육대회 배구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26회 충남학생체육대회 배구부문

청양초등학교는 당진 서정초등학교, 천안 부영초등학교를 상대하여 결승에 진출했고, 대망의 결승전에서 아산 둔포초등학교를 만나 2:0의 세트스코어로 승리했다. 최재길 교장은 "4~5학년 선수들의 데뷔전이었기에 이번 금메달의 의미가 더욱 깊다. 선수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빛을 내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 탕정온샘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아산시립도서관(관장 권경자)은 탕정온샘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도서관 운영을 돌아보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탕정온샘도서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주요행사로 ▲탕정온샘도서관 1년사 전시 ▲원화전시 ▲인권영화 날아라 펄컨 ▲인형극 욕심 많은 웅고집 ▲도서관 생일 파티 떡 케이크 만들기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체험 ▲책표지 종이방 만들기 체험 ▲이용자 추천도서 운영 ▲소원나무 만들기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개관한 탕정온샘도서관은 개관 이후 방문 이용자수 1만여 명, 회원 등록자수 2천8백여 명, 대출자수 3만 7천여 명, 대출권수 19만 9천여 권을 기록했다. 또, 지난 1년간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위한 음악이 있는 그림이야기, 문화가 있는 날 낭독콘서트, 가족힐링 콘서트, 갑 위 의 인문학 등 32

아산 탕정온샘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개최

개 강좌, 82회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탕정온샘도서관 관계자는 "탕정온샘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관 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다양한 도서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내실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관 1주년 행사관련 기타 세부 문의는 아산시립 탕정온샘도서관 (041-536-8743)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선서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 관 |

